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음 3월 21일) 제178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촛불대선 D-22

文-安에 대한 호남 민심은?

## ‘예측불가’... 누구를 잡나

호남의 민심을 붙잡기 위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치열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청와대 주인이 되기 위한 '진검 승부'에 돌입하며 지역 여론도 하루가 다르게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 안 두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누가 앞서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엇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이다.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안개정국으로, 선거 당일 투표함을 열어야 호남민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호남 승부는 정권교체를 이뤘고 남북평화,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심을 가졌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통을 누가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에 달렸다는 분석이 높다.

문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앞서 워 호남 민심이 우세하다고 보는 분위기이고, 안 후보 측은 4·12 재보선에서 국민의당이 우세한 결과를 앞세워 호남 민심은 자신들 쪽에 있다고 맞서 있다.

호남의 향배가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만큼 양측 모두 아집인수 식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5곳에서 열린 호남 지역 재보선에서 국민의당은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1명 등 모두 3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나머지 두 곳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이를 두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호남 민심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전히 '반문 정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와는 달리, 이날



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가 앞서 한 쪽에 확실하게 손들어 줄 상황이나 양 캠프의 지역 전략 추진이 변수 될수도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안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다.

MBN·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25명에게 조사해 이날 발표한 4월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가 44.8%의 지지율로 36.5%를 기록한 2위 안 후보에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인 8.3%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문 후보가 48.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안 후보는 43.3%로 2위에 그쳤다. 후보간 지지를 조사한 놓고 재보결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셈이다.

물론 겉으로는 두 후보 모두 호남의 민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다.

호남이 어느 한 쪽을 확실하게 손들어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호남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캠프 관계자들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단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보다는 실제 표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의미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재보선 투표율 자체가 그리 높았던 게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이거 좋은 물건이네"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내 공감터길 오픈식에 참석한 김수세 전주시장이 공감터길 안에 마련된 프리마켓을 둘러보며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 오늘부터 '대선 선거운동' 돌입 내일까지 인명부 열람 가능

17일부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전북도선관위는 17일부터 선거일 전 일인 5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1매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안재용 기자

## 정세균 의장 "세월호 미수습자 9명 빨리 찾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세월호가 거침된 전남 목포시항을 직접 방문해 미수습자 수색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방문을 마친 뒤 모 언론사와 만나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 그나마 국민들이나 미수습자 가족이나 유가족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진상 규명이라든지 여러가지 미흡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선체조사위가 구성됐으니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소중하고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또 "이른 시간 내에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뉴스

매일 INDEX

3면 - 박근혜 비선진료 전담 법제 공개

4면 - 한옥마을 문화축제 개최 제동

16면 - 군산 예술의전당 개관 4주년

2017. 5.3.(수)-5.7.(일)  
광한루원·요천·시내일원

# 춘향제가 세기의 사랑 공연예술축제

로 태어납니다.

원월정 세기의 사랑 예술공연, 달빛콘서트 | 광한루각 전통소리청 | 춘향사랑 실험창작극장 | 거리홍판 걸스락 페스티벌, 이만사반공연

춘향! 사랑으로 너를 그리다

주최·주관, 춘향제추진위원회 후원, 남원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협력예술위원회